

광주 에너지전문가-시민활동가 ‘친환경 에너지 자립’ 해법 찾기

AI뉴딜추진위원회 회의
‘그린 스마트 펀 시티’ 논의
신재생에너지 조성 현장 찾아



광주시 에너지전문가-시민활동가들이 지난 25일 광주 AI-뉴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광주도심 내 에너지세어카 서비스현장(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에너지전문가와 시민활동가들이 직접 미래 에너지 실증 현장을 방문하고, ‘친환경 에너지 자립자족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이들은 국가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현장을 비롯한 에너지세어카 서비스현장(미래형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 신호천마을(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연구사업), 조선태학교(블록체인 기반 EV-신재생에너지 DC전력거래 플랫폼 시스템 개발사업), 월드컵경기장 주차장(2.5MW 태양광 설치예정), 빔고을에너지연료전지발전소(12.32MW) 조성 현장 등을 방문해 운영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27일 광주 AI-뉴딜추진위원회(위원장 조환익)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광주시의 ‘Green Smart Fun City’ 실현을 위한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후에는 그린뉴딜분과(분과위원장 김광관) 주관으로 전문가, 시민활동가 20여명과 함께 에너지 관련 현장 및 실시간 전력데이터 기반 에너지정보플랫폼 시연을 참관했다.

이들은 또 광주 그린뉴딜 민간투자 제1호 사업 건설 현장인 12.32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방문하고, 광주에서 추진중인 전력자립 선도 사업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이 발전소는 미래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를 생산해 시정 등 26개 기관 및 아파트 480세대에 열을 공급하고 있으며, 2만8000 가구에는 전력을 추가 공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광주의 전력자립률을 1.1% 정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저탄소 녹색아파트에 참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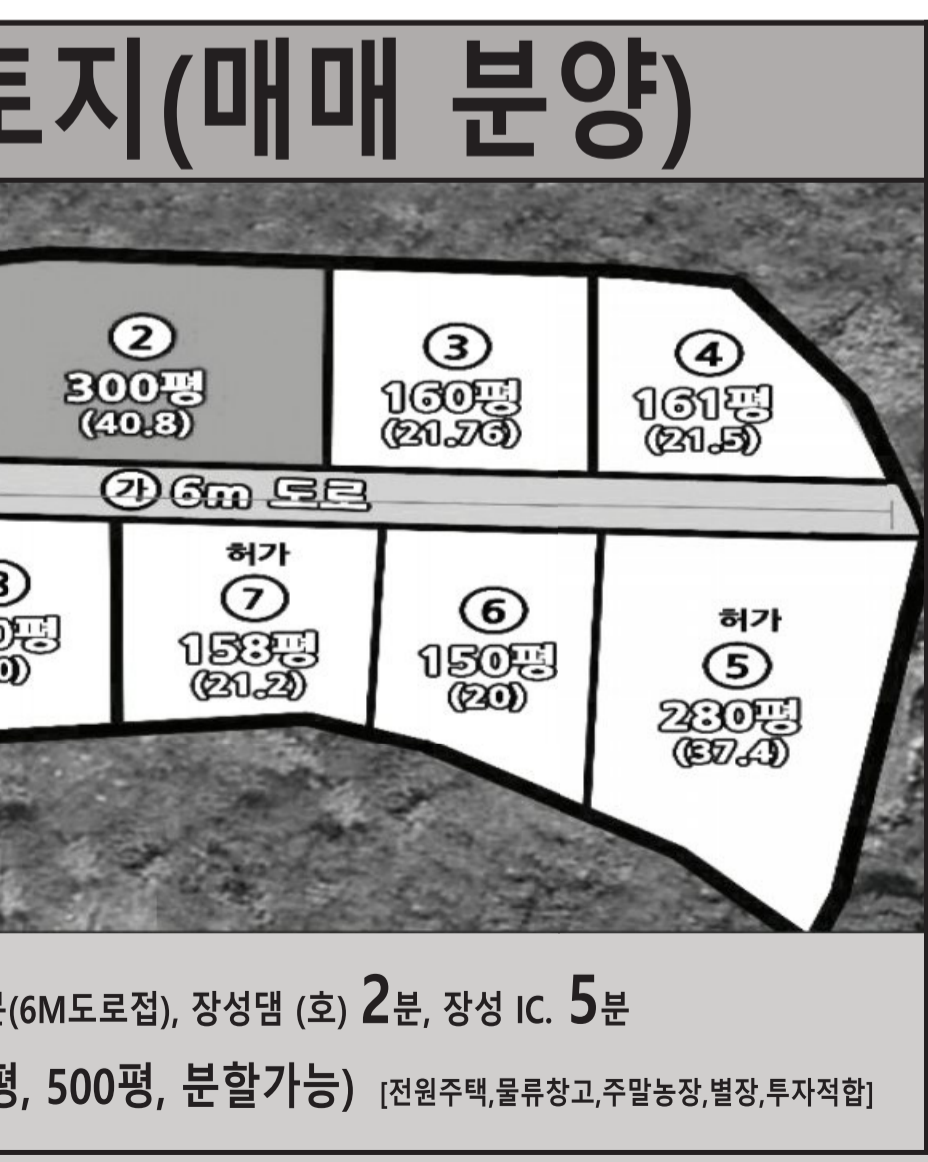
광주시 3월11일까지 50곳 모집
연말 쓰레기 감축 등 평가 시상금

광주시는 “입주민의 자발적 실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에 참여할 아파트를 모집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관내 100세대 이상 아파트 50곳으로, 전기·가스·상수도 사용량 절감을 목표로 한 ‘에너지 절약’ 부문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절감을 주목적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부문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 신청은 (재)국제기후환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와 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3월 18일 (재)국제기후환경센터 홈페이지에 발표하며,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와 (재)국제기후환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장과 입주민을 대상으로 온실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 등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우수아파트는 연말에 감축 실적을 종합평가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나눠 40곳을 선정하고, 시상금 총 1억 8000만원을 지급한다.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장성 토지(매매 분양)

상가매매(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휴,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남구 행암동(임야)▶ 감정가 97억 -> 54억 (2/23)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3억7천 -> 3억 (2/23)
	북구 일곡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1천 -> 4억8천 (2/23)
	북구 본촌동(근린시설)▶ 감정가 15억 -> 11억 (3/2)
	광산구 소촌동(농지)▶ 감정가 4억4천 -> 3억1천 (3/3)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2억5천 -> 1억7천 (3/4)
	광산구 삼거동(임야)▶ 감정가 3억9천 -> 1억7천(3/15)
전남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감정가32억 -> 18억 (2/21)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감정가 25억 -> 11억 (2/28)
	나주시 금천면(주택)▶ 감정가 4억1천 -> 2억9천 (3/15)
	나주시 다도면(주택)▶ 감정가 9억9천 -> 5억5천 (3/15)
시외	당진시 송산면(다가구원룸)▶ 감정가 4억8천 -> 8천 (2/15)
	서울특별시 중랑구(근린주택)▶ 감정가 17억 -> 8억8천(3/2)

010-6670-9800

광주김치타운서 다양한 체험 즐기세요

연령별·수준별 맞춤형
김치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체험·찾아가는 서비스도

광주김치타운은 “김치교육·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수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체험과정 5개와 교육과정 4개다. 광주시에서 위탁받은 세계김치연구소가 최고 전문가를 활용해 세대별·수준별로 체계화된 과정을 운영한다.

비스도 운영한다. ‘주말 김치요리 체험교실’은 주말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 김치를 만들고, 김치삼색주먹밥이나 김치토르티야 등 김치 응용요리를 만들 수 있는 과정이다. 교육과정은 ▲고급과정 ‘제1기 김치 리더스 아카데미’ ▲김치명사와 함께 김치 담그기 ▲파라하임 김치가 어렵지 않아야 ▲우리집 계절반찬 만들기 등으로, 초급과정부터 고급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특히 ‘제1기 김치 리더스 아카데미’는 5월 말까지 접수·심사를 거쳐 20명을 선발한 뒤 6월부터 15주간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김치타운 홈페이지 또는 전화 접수(062-672-8447)하면 된다. 황인근 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은 “김치타운은 완벽한 청결 위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르신 특화 첨단대상파크골프장 확장사업

10월 개장 목표 9홀→18홀
다자녀 가정 등 감면율 확대

광주시는 “어르신 특화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첨단대상파크골프장 확장사업(9홀→18홀)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2009년 조성된 첨단대상파크골프장은 광주시 관내 파크골프장 6곳 중 가장 오래된 파크골프장으로, 이용자만 연간 3만여 명에 이른다. 첨단대상파크골프장 확장사업은 지난 25일 실시계획승인 일괄 공고, 울 상반기 내 공인조성위원회 심의 절차, 이용자 의견을 들어 6월실시계획을 완료하고, 공사를 거쳐 10월 개장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만 65세 이상자와 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50%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3월 2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선자 광주시 체육진흥과장은 “첨단대상파크골프장 확장사업은 실시계획 단계부터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들어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명품 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고령화시대에 맞춰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골프장 확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6월 동구 소재동 파크골프장(9홀) 신규 개장에 이어 오는 9월에는 광주시 첫 36홀 구장인 광산구 서봉 파크골프장을 개장할 예정이다.

광주시, 3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 운영

여가부 공모 지원사업 선정
영상물 삭제 등 맞춤형 지원

광주시는 “3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모에서 선정된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운영을 맡아 전문 상담사를 통해 심층 상담, 피해 영상물 삭제, 수사 통행, 법률·의료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한다. 특화상담소는 방송통신위원회 불법 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으로 지정돼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중앙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다른 플랫폼

의 유포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 관리도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지역 단위로 지원하려고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이다. 특화상담소는 지난해 7개 사·도에서 운영했으며 올해 광주, 인천, 대전, 충북으로 확대됐다. 최선영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가 운영되면 피해자들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